

# 命理古典 翻譯 方法論에 관한 嚴腹의 信·達·雅의 번역 기준 研究

김현덕\*, 김기승\*\*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 A Study on the Translation Criteria of ENFU SIN, DAL, AH on the Translation Methodology of Myeongri Classical

Hyun-Deok Kim\*, Ki-Seung Kim\*\*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명리학의 원서 번역에 있어서 직역과 의역에 편중을 두다가 해석의 무리를 범한 예를 찾아서 그에 대해 엄복의 신·달·아(信·達·雅)의 기준에 맞추어 명리학의 원서 번역의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여 보았다. 원서 번역은 기본적으로 원 저자의 의도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信)에 해당하는 직역과 달(達)에 해당하는 의역 그리고 우아한 해석에 해당하는 아(雅)를 기준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해석에 적용되어야 한다. 번역은 원 저자의 의도에 등가성 구현이 가장 큰 목적이므로 표현의 상이성 속에서도 출발언어와 도착언어의 등가성은 지켜져야 한다. 지금까지 명리학 번역에 관한 문제는 주로 언어 구조적 차이를 극복하려는데 치중을 하여 주로 문체론적 번역에 치중을 하였다. 이제는 번역은 문체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의미적 등가성 구현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원서 번역에서 원 저자의 의도와 등가성을 잘 이룰 수 있는 엄복의 번역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명리학의 고전 문헌 연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려고 한다.

**주제어** : 동양철학, 번역기준, 명리학, 등가성, 출발언어, 도착언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find examples of a group of interpretations while biased toward the translation of the manuscripts of Myeongnology, and to apply the criteria of the translation of the manuscripts of Myeongnology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of SIN(信), DAL(達), and AH(雅) of EOM-BOK. Since the original author's intention should be faithfully reflected, th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book should be applied to the interpretation required at that time based on the translation corresponding to SIN(信), the translation corresponding to DAL(達) and the AH(雅) translation corresponding to the elegant interpretation. Translation is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implementing equivalence in the intentions of the original author, so the equivalence of the Source language and the Target language should be observed even in the differences of expression. Up until now, the question of the translation of the nouns has mainly focused on the translation of the stylistic system by focusing on trying to overcome the structural differences of the language. Translation now requires the implementation of semantic equivalence as well as primarily a stylistic approach. This researcher wanted to open a new horizon for the study of classical literature in Myong-hak by presenting a standard for the translation of robes that achieve the intent and equivalence of the original author in th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text.

**Key Words** : Oriental philosophy, Translation criteria, Myeongnology, Equivalence, Source language, Target language

Received 17 December 2019, Revised 07 January 2020  
Accepted 15 January 2020  
Corresponding Author: Ki-Seung Kim  
(Professor, Department of Oriental Study,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Email: kbs4984@hanmail.net  
ISSN: 2466-1139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정보화 시대는 시간과 공간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까워져 있고, 이로 인해 세계는 수많은 정보가 시시각각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매체를 통해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번역은 필수불가결하며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번역은 마치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공간과 시대에 맞게 번역하는 방법은 늘 변할 수밖에 없다.

명리학의 원서 번역은 한문과 명리학에 대한 소양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한다. 한문의 소양만 갖고 번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 편의 소설책을 번역할 경우도 원저자가 속해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을 모두 고려했을 때 독자들을 쉽게 이해시켜줄 수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리학 원서 번역도 같을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의 독자들은 한문에 대한 소양이 다소 부족하므로 번역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현재 독자층의 눈높이에 맞는 번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어휘의 선택과 문장의 배열이 현행 학교 문법에 입각해서 번역을 한다면 현재의 독자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번역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선 원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엄복의 신(信)의 직역 방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맥의 흐름에 맞게 달(達)의 방법인 자연스러운 의역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전개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번역자는 제 2의 창작자라는 소임을 안고 원저자의 의도하는 바를 가능한 우아하고 멋스럽게 표현해야 하는 아(雅)의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였을 때 독자를 위한 번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명리학의 원서 번역은 많이 되었지만, 명리학의 원서 번역의 기준과 방법론에 대한 논문이 없었으므로 엄복이 제시한 신·달·아(信·達·雅)라는 번역 기준을 통하여 『적천수천미』를 사례로 명리학 원서 번역 기준과 방법론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명리학 번역의 이론체계에 대한 논리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2. 번역의 개념

번역이란 어떤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뜻이 상응하도록 표현해 내는 작업이다. 그러나 각 나라 간의 문화,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어휘의 의미 차이와 문법의 형식도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온전히 고려한 번역은 대단히 힘든 작업이다. 그러나 번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번역은 <출발언어(일차언어, 소재언어, source language)>를 <도착언어(이차언어, 목표언어, target, language)>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출발언어>와 <도착언어>는 문화, 역사적 배경과 언어학적 구조에서도 상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두 언어의 절대적 동일성을 갖기는 어렵다. 번역가들은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적당한 표현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직역만으로는 원저자의 풍격(風格)을 표현하기가 어려워 의역을 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번역가의 배경지식을 총동원하여 다양한 비유를 통해 원저자의 의도하는 바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번역가는 원문과 번역문의 등가성을 이루기 위해 <출발언어>의 언어적 지식과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여 <도착언어>로 표현할 때 <도착언어>의 언어적 지식과 사회,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활용하여 원문과 번역문의 등가성을 이루어야 한다.

러시아의 번역가 삐트로브는 『번역이론개요』에서 “번역의 기준은 번역의 등가”라고 말했다. 그는 “등가란 이 술어는 번역에서 원문의 작용과 합치성(표현에서의 적절성, 즉 등가) 및 역자가 선택하여 쓰는 언어의 적절성(언어와 문체의 등가)이란 이 두 가지 개념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삐트로브가 제기한 이 기준은 원문의 사상 내용을 정확하고도 완전하게 표현해야 하며 번역

1) 풍격(風格)이라는 용어는 원래는 사람의 풍채나 품격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는 개인의 외형적인 모습에서 느껴지는 전체로서의 인상 내지 개성인 것이다. 문장에 있어서 풍격이란 문학예술 작품이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 고전문학 이론에서는 어느 작가나 작품의 특징적인 성격을 개관하는 의미에서 '풍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외에도 '체(體)' '격(格)' '품(品)' '풍모(風貌)'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풍격에 관한 문론가들의 주장은 역사적 발전을 해왔다. 조비(曹丕)는 『전론·논문(典論·論文)』에서 문장은 저마다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고 말하면서, 이는 작가의 고유한 기질과 재성(才性)에서 말미암은 선천적인 것이라 규정하였다. 갈홍(葛洪) 역시, 작가의 개성이 천차만별한 풍격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풍격 [風格]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1. 30.,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의 언어를 적절하게 골라 써야 한다는 것이다.<sup>2)</sup>

이에 대해 이석규 등은 번역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출발언어 텍스트의 분위기나 문체를 가능한 살려야 한다. 둘째는 출발언어와 도착언어의 등가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는 번역자는 도착언어의 독자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sup> 번역은 출발언어의 언어형식과 시·공간적 차이로 인한 내용과 형식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도착언어의 전달에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모국어의 자유로운 구사가 필요하다.

번역의 1차 작업은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충실히 드러나기 위한 직역 방법이다. 이는 오역의 위험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므로 직역 방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문의 경우는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한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므로 단어가 가진 1차적 의미만으로 문맥에서 필요한 도착언어의 단어를 찾는 작업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다. 그러므로 단어가 지닌 여러 가지 의미를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직역으로 인한 사전적 의미가 충실히 번역이 되었으면 2차 작업은 문맥의 매끄러움과 독자의 이해를 위해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역 방법으로 문맥을 다듬어야 할 것이다. 단어가 가진 1차적 의미만의 나열은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독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 한자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 있는 배경 지식과 함께 이해되어야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 이와 같이 문맥 속에서 자연스런 번역이 되었다면 한자만이 가지고 있는 비유적 표현이나 고사성어의 활용에 유의해야 한다. 한자는 비유적 표현이나 고사성어 사용으로 원저자는 자신의 문체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자칫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내용전달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독자 역시 독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한문이 지니고 있는 비유적 표현과 고사성어는 내용의 상황에 맞게 알맞게 포장이 되면 화려하고 멋진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저자의 화려한 표현 구사력을 망치게 될 수도 있다.

최정화는 『통역/번역 노하우』에서 충실한 번역의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첫째는 의미에 충실하기 위해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저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번역가가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서는 곤란하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지식뿐 아니라 언어 외적 지식, 즉 주제 의식이 필수적이다.<sup>4)</sup>

원문에 대한 번역가의 이해라는 전제를 언급한 내용이다. 원문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때 번역가는 가능한 자신의 목소리는 저자의 목소리를 뛰어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는 도착언어에 충실해야 한다. 출발언어와 도착언어는 서로 다른 문법규칙과 표현방식을 가지고 있는 언어이다. 번역과정에서 지나치게 원문의 출발언어를 의식할 경우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도착언어 표현이 나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번역가들은 모국어 표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된다.<sup>5)</sup>

출발언어를 이해하는 목적은 도착언어로 표현을 잘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출발언어에서 보이는 특수한 표현 형식이나 원저자의 특수한 사유 표현 방식에 대한 철저한 고찰이 이루어졌으면 이를 도착언어로 표현함에 있어서 그 시대에 맞는 표현과 문법 구조에 충실하면서 순조롭고 능숙하게 전달해야 한다.

셋째는 번역 대상인 독자에 대한 충실성이다. 저자가 글을 쓰면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독자와 번역물의 대상 독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배경과 관습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른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을 번역 대상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sup>6)</sup>

번역가는 번역을 할 때 우선적으로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번역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번역의 글이 독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어휘, 문장, 표현 등을 선택해야 한다. 번역의 시작이 원문에 대한 번역가의 충실한 이해라면 번역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은 독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다.

2) 최기천(2014), 『중국어 번역법』, 학고방, p.10  
3) 이석규 외 5인 공저 (2002), 『우리말따게 번역하기』, 역락, p. 220,

4) 최정화(2001), 『통역/번역 노하우』, 도서출판 넥서스, p. 167

5) 최정화(2001), 위의 책, p. 167

6) 최정화(2001), 위의 책, p. 167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번역의 1차 작업은 사전적 의미를 명확히 해석한 직역을 방법으로 접근을 한 다음, 2차 작업으로는 독자에게 정확하고 쉽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문맥 다듬기에 해당하는 의역 방법을 거치고 그 다음으로는 원저자가 원래 의도했던 화려한 표현을 가능한 살리면서 독자를 배려한 3차 작업을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저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3. 엄복(嚴腹)의 信·達·雅의 번역 기준

엄복(嚴腹 : 엔푸 1853~1921)<sup>7)</sup>은 1898년에 T.H.헉슬리의 『천연론(天演論)』을 번역하면서 「신·달·아(信·達·雅)」라는 번역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로부터 중국에서의 번역 기준이 생기게 되었다.

신(信)은 번역문이 원문에 충실해야 하는 것으로 원저자가 의도한 바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출발언어에 대한 단어 하나라도 정확하게 번역해야 함을 의미하며 원문의 뜻을 그르치지 않는 직역(直譯)에 해당된다.

달(達)은 도착언어에 해당하는 번역문이 출발언어에 해당하는 원문을 문맥의 순탄함과 매끄러움을 독자의 이해를 위한 의미전달에 있어서 원저자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자연스럽게 적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역(意譯)에 해당한다.

아(雅)는 수려한 단어로 아름답게 다듬어 전하려는 표현이 우아하며 예스러워야 한다. 이는 신(信)에 해당하는 직역의 번역이 완성된 다음, 달(達)에 해당하는 독자의 이해를 위한 문맥상의 자연스러움을 표현한 후 원저자의 화려한 표현을 뒷받침하는 비유적인 표현과 고사성어 해석을 도착언어의 독자를 위해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엄복의 번역 기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이론이 있다. 먼저 긍정의 이론은 신·달·아(信·達·雅)에서 신(信)은 내용면에서 기준이 명확한 해석이 전제되어야 함을 말하고, 달(達)과 아(雅)는 형식면에서 기

준이 명확한 해석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신·달·아(信·達·雅)는 번역의 과정에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반해 부정 이론은 아(雅)의 표현을 예스럽고 아름다운 표현을 쓰면 신·달·아(信·達·雅)는 그 자체의 모순에 빠지게 된다. 부정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아(雅)의 표현이 달(達)의 표현을 이룰 수 있지만, 예스러운 표현을 함에 있어서 이속문자(利俗文字)를 사용하게 되면 진정한 의미의 달(達)과 아(雅)의 표현을 이룰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엄복이 기준을 내린 아(雅)의 표현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글인 고전 문체를 강조하여 이런 문체로 문학 작품을 창작하였다면 내용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표현과 묘사에 있어서 풍부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작품이 나왔을 것이다. 이에 대한 전제는 당시 독자들이 이러한 문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경서(經書) 정도는 익숙하게 읽을 수 있는 지식인들의 수준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복은 알아보기 쉽고 수준이 떨어지는 이속문자(利俗文字)는 배척하였다.

### 4. 명리고전 번역 방법론

엄복의 번역 기준을 적용한 명리학 원서에 대한 번역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 단계 1. 번역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번역자는 명리 자체는 물론 출발언어 및 도착언어에 대한 사회, 문화적 배경, 사고 구조에 대한 충분한 소양이 있어야 하고, 학교 문법과 시대적 언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한다.

#### 단계 2. 번역 대상 설정

고전 명리서 중에서 번역이 안됐거나, 오류번역, 난해번역, 과거용어번역 등 번역이 필요한 대상을 정한다.

#### 단계 3. 엄복의 번역 기준 적용

##### 3-1. 信

출발언어인 원문의 뜻에 충실하게 직역한다.

##### 3-2. 達

7) 중국 청(淸)나라 말기의 사상가. 양무운동(洋務運動)의 일환으로 세워진 푸저우 선정학당[福州船定學堂]에서 공부하고 영국에 유학하였다. 청일전쟁 이후 서유럽의 학술·사상을 번역 소개했다. 변법운동(變法運動)을 비롯해 청말기 개혁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원저자의 뜻이 도착언어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의역한다.

### 3-3. 雅

신(信)과 달(達)의 과정을 거친 번역내용이 독자에게 완벽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비유표현, 고사성어 처리 등 번역자만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반영한다.

### 단계 4. 마무리

번역된 내용과 번역 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반사항(용어정의, 참고자료, 번역기준, 추가설명 등)을 점검한다.

## 5. 『적천수천미』에 번역 방법론 적용

명리학의 원서는 일반 번역문과는 달리 한문과 명리학에 대한 소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명리학의 원서 번역을 알기 쉽게 번역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명리학 원서의 전문적인 번역가들도 예전에 한학을 공부하시던 분들이 많은 편이라 현대적 감각에 맞는 표현을 하는 데는 다분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게다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독자를 고려할 때 문법 구조의 표현도 현행 학교 문법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현대적 감각에 맞는 표현을 하면서 현행 학교 문법에 맞는 번역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 번역문에 비해 위의 기준에 적합한 명리학 원서를 번역한 서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명리학의 원서 번역 방법론에 관한 연구도 거의 없는 편에 속한다. 명리학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단순히 점술로만 취급되지 않고 학문으로 취급되고 있다. 학부, 대학원에서 명리학의 학과가 개설되어 많은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문헌 연구에 대한 논문도 이미 많이 나와서 그에 대한 학술적 가치도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명리학 원서 번역 방법론에 대한 논문을 많지 않은 편이다. 명리학 번역 방법론에 관한 논문도 병행하여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명리학 원서는 막연히 어렵다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뿐더러 명리학이 인문학의 학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5.1 신(信)의 번역방법

신(信)의 번역방법은 번역문은 원문에 충실해야 하는 것으로 원저자가 의도한 바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출발언어에 대한 단어 하나라도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원문의 뜻을 해치지 않는 직역(直譯)에 해당된다. 한문으로 된 서적을 번역할 경우 비유적인 표현과 고사성어(故事成語)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용하지 않고 사전적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원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번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저자가 의도하려는 표현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려는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 양식이 출발언어의 언어 환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도착언어의 등가성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대치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滴天髓闡微』 통신론(通神論) 쇠왕(衰旺)편에서 사전적 의미로 직역(直譯)을 하여 문맥 전체의 의미 전달이 어렵게 되는 경우이다.

<출발언어>

“此造重重厚土，生于夏令，土太旺者，似木也，其用在金。庚申運，①早采芹香。辛酉運辛丑年，②飲鹿鳴，③宴瓊林，④雲程直上。壬戌運，刑喪挫折，丙午而亡。”

<도착언어-사례>8)

“이 명조는 두터운 흙이 많고 여름인 5월에 태어났으니 토가 지나치게 왕하여 [토태왕자사목(土太旺者似木-토가 태旺하면 木과 같다)이라 하여] 그 용신이 금에 있다. 庚申 대운에는 ①일찍이 미나리를 캐었다. 辛酉 대운 辛丑년에 ②사슴 울음 소리를 들으며 술을 마시고, ③아름다운 숲속에서 잔치를 하고, ④운정(雲程)이 곧바로 상승하였다. 壬戌 대운에 형상(刑喪)의 좌절로 丙午년에 사망하였다.”

①“조채근향(早采芹香)”을 “일찍이 미나리를 캐었다”로 번역 할 경우 전체의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다. “근향

8) <도착언어-사례>는 글의 전개를 위하여 필자가 임의로 번역한 것임을 밝힘.

(**芹香**)”은 국립학교인 국자감의 주변에 미나리밭이 많아 미나리를 캐었다는 뜻은 국립학교(좋은 학교)에 입학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채근향(早采芹香)**”의 문맥적 의미는 ‘어린 나이에 국립학교에 입학을 하였다’ 정도나 ‘어린 나이에 좋은 학교에 입학하였다’로 번역을 해야 할 것이다.

②“**음녹명(飲鹿鳴)**”을 ‘사슴 울음소리를 들으며 술을 마셨다’로 번역을 하였을 경우도 문맥의 흐름이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다. “**녹명(鹿鳴)**”은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으로 원래 녹명(鹿鳴)은 임금(王)이 여러 신하와 귀한 손님에게 잔치를 베풀고 사신(使臣)을 송영(送迎)하는 데 쓰인 음악이었는데, 그 후에 연례(燕禮)와 향음주(鄉飲酒)에서 쓰였다. 내용은 우는 사슴에게 먹이를 주듯이 임금이 신하를 불러 향응(響應)함에 비유한 것<sup>9)</sup>으로 지방 현의 장관이 향시 합격자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으로 “**음록명(飲鹿鳴)**”의 의미는 ‘향시에 합격하였다’ 정도로 번역을 해야 할 것이다.

③“**연경림(宴瓊林)**”을 ‘아름다운 숲속에서 잔치를 하고’로 번역을 하였을 경우도 역시 문맥의 흐름이 전혀 연결이 안 된다. “**연경림(宴瓊林)**”에 대한 번역은 대궐에서 전시 진사 합격자들에게 임금이 베풀어 주는 잔치이므로 전시에 합격하였다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므로 “**음녹명(飲鹿鳴)**” “**연경림(宴瓊林)**”은 향시와 전시 과거 시험을 연달아 합격하였다는 의미로 번역을 해야 할 것이다.

④“**운정(雲程)**”은 청운(靑雲)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청운(靑雲)의 뜻은 ‘푸른색을 띤 구름은 어두운 색을 띤 구름보다 높이 떠있다’는 의미로 높은 지위나 벼슬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자주 쓰이곤 한다. 그러므로 “**운정직상(雲程直上)**”은 ‘벼슬이 곧바로 상승하였다’로 번역을 해야 할 것이다.

위 번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문이 가지고 있는 숨은 속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만 치중한 직역이다. 직역을 하더라도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나 숨은 속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원문과 번역의 등가성을 이루지 못하여 번역이 아

니라 한자의 뜻풀이에 불과한 번역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滴天髓闡微**』 통신론(通神論) 지명(知命)편에서 비유와 고사성어를 사전적으로만 직역을 하여 문맥 전체의 의미 전달이 어렵게 되는 경우이다. 고사성어는 한문을 구사하는 중국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에 대한 교훈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일상 언어생활의 표현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적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표현 수단이 되곤 하였다. 임철초 선생은 『**滴天髓闡微**』에서 자신의 해박한 지적 능력과 화려한 문체를 구사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고사성어(故事成語)를 적절히 구사하였다. 임철초 선생이 화려하고 자유자재로 구사한 고사성어(故事成語)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고사성어(故事成語)의 발생 배경과 정확한 의미 파악에 대한 인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출발언어>

“初運癸亥，助其旺神，**①蔭庇有餘**，一交壬戌，水不通根，逆其氣勢，刑耗并見，辛酉庚申，丁財并旺，**②己未戊午**，逆其性，半生事業，**③盡付東流**，刑妻克子，孤苦無依。此所謂**④昆侖之水**，可順而不可逆也。”<sup>10)</sup>

<도착언어-사례>

“초년의 운인 癸亥는 그 왕신을 돕기 때문에 조상의 **①음비(蔭庇)가 넉넉하였고**, 한 번 壬戌 운을 만나서는 수가 통근하지 못하고, 그 기세(氣勢)를 거스르니 형모(刑耗)를 함께 당했다. 辛酉, 庚申 운에는 사람과 재물이 함께 왕성하였다. **②(그러나) 己未, 戊午** 대운에 그 성정을 거스르려서 반평생 이룩한 사업을 **③모두 東으로 흘러 보냈고**, 형처극자(刑妻克子)하였으며 의지할 곳이 없고 외로움과 고통 속에 지냈다. 이는 이른바 **④곤륜지수(昆侖之水)**는 순종(順從)은 하지만 거스르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말한 것이므로 순역지기(順逆之機)를 알아야 한다.”

<출발언어>를 위와 같이 <도착언어>로 전환하였을 경우 독자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9) 녹명 [鹿鳴]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도 있다. 물론 한자의 비유적인 표현이나 고사성어(故事成語)에 해박한 사람이라면 위의 내용이 그리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사실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번역은 독자들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독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번역의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음비(蔭庇)<sup>10)</sup>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음비(蔭庇) :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비호하고 감싸줌.  
[유사어]비음(庇陰). 음비(蔭庇). 음비(蔭庇).  
[참고어]유음자손(有蔭子孫).

◦ 유음자손(有蔭子孫) : 음직(蔭職)을 받았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손. 음(蔭)은 비음(庇陰)의 뜻으로 문음자제(門蔭子弟)와 공음자제(功蔭子弟), 즉 2품 이상의 고관과 공신의 자제를 의미함.

①“음비유여(蔭庇有餘)”에 대한 해석은 조상의 도움에는 여러 가지의 도움이 있겠지만 그중 벼슬길에 있어서 조상의 도움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초년 쫓亥 운에는 이미 벼슬길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③“진부동류(盡付東流)”의 해석에서도 출발언어에 대한 명확한 의미과약이 안 되면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따른다.

- 盡 : 다하다. 다 써 없앴.<sup>11)</sup>
- 東流 : 냇물이나 강물이 동쪽으로 흐른다는 뜻으로 중국의 대부분의 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미 흐른 강이 다시 거슬러 올라 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주로 ‘사람이나 사물은 모든 것이 이미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인다.

③“진부동류(盡付東流)”의 해석은 ‘일단 지나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의 해석과 같이 ③ ‘모두 동으로 흘러 보냈고’라고 해석을 한다면 동쪽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없어 문맥의 의미 전달에 있어서 등가성을 이룰 수가 없

다. 그러므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의 해석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②의 접속어는 원문에는 없지만 문맥의 연결에 있어서 넣어 주는 것이 독자를 배려한 해석이 될 수 있다.

“辛酉庚申, 丁財并旺, ② 己未戊午, 逆其性, 半生事業, 盡付東流, 刑妻克子, 孤苦無依.”

“辛酉, 庚申 운에는 사람과 재물이 함께 왕성하였다. ② 己未, 戊午 운에는 그 성정을 거역하여 반평생 이루어 놓은 사업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고 형극극자(刑妻克子)하였으며 의지할 곳이 없이 외롭고 고통 속에 지냈다.”

②의 앞부분 “辛酉庚申, 丁財并旺”의 해석에 있어서도 출발언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丁’에 대한 해석에도 다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丁’에 대한 해석은

- ① 고무래로 밭의 흙을 고르거나 아궁이의 재를 긁어 모으는 농기구
- ② 10개의 천간 중 네 번째 천간인 정화(丁火)
- ③ 성인남자. 장정. 인구. 식구 수. 가족수.
- ④ 전문적인 노동·직업에 종사하는 젊은 남자.

문맥의 흐름상 ③번과 ④번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辛酉庚申, 丁財并旺”은 ‘辛酉 대운과 庚申 경신 대운에는 사람과 재물이 왕성하였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긍정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②의 뒷부분인 “己未戊午, 逆其性, 半生事業, 盡付東流, 刑妻克子, 孤苦無依, 盡付東流, 刑妻克子, 孤苦無依.”의 해석은 ‘己未 대운과 戊午 대운에는 그 성정을 거역하여 반평생 이루어 놓은 사업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처자식을 형극하고 의지할 곳이 없이 외롭고 고통 속에서 보냈다.’의 해석은 부정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②의 전후의 내용은 대조적인 내용이므로 역접의 접속사인 ‘그러나’를 넣는다면 문맥의 전달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것이다.

10) 음비(蔭庇)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1) 《漢韓大字典》(1982), 민중서림, p. 863

④“곤륜지수(昆侖之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위의 <도착언어>에서와 같이 “곤륜지수(昆侖之水)”로만 해석을 한다면 위의 ③“진부동류(盡付東流)”처럼 독자에게 의미 전달에 모호함을 줄 수 있다. “곤륜지수(昆侖之水)”에 대한 해석은 『滴天髓闡微』 통신론(通神論) 천간(天干)편 壬水의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壬水即癸水之發源，昆侖之水也。 癸水即壬水之歸宿，扶桑之水也。有分有合，運行不息，所以爲百川者此也，亦爲雨露者此也，是不可歧而二之。申爲天關，乃天河之口，壬水長生于此，能泄西方金氣。周流之性，沖進不滯，剛中之德猶然也。”

“壬水는 癸水의 발원이므로 곤륜(崑崙-중국 서쪽에 있는 黃河의 발원지)의 水이다. 癸水는 곧 壬水가 돌아와 머무는 곳이다. 해 뜨는 동쪽(부상-扶桑)의 水이다. 흠어지고 합하여 쉬지 않고 운행한다. 이것으로써 수많은 물줄기가 모두 이것이 된다. 비와 이슬도 역시 이것이다. (壬水와 癸水를) 둘로 나눌 수는 없는 것이다. 申은 천관(天關-북두칠성)이니 곧 천하(天河-은하수)의 출입구이므로 壬水는 이곳에서 長生하고 서쪽 방향의 金氣運를 설기하고 두루 흐르는 성질은 막힘없이 나아가며 막히지도 아니하니 강중(剛中-굳세고 중정한)의 德이 이러하다.”

천하의 모든 물은 곤륜산(崑崙山)에서 발원(發源)하여 수많은 물줄기가 신궁(申宮)에서 흘러 마지막 종착지인 동쪽으로 흘러 가므로 모든 물의 근원(根源)을 비유하는 말이다. “곤륜지수(昆侖之水)”는 수많은 물이 합쳐서 흐르는 것이므로 그 기세가 매우 험차다. “순종(順從)은 하지만 역(逆)으로 흐르는 것은 불가함”을 말한 것이다. <도착언어>에서 “곤륜지수(昆侖之水)”라고 그냥 표현하기 보다는 “곤륜지수(昆侖之水)”의 성정을 ‘많은 물이 합쳐 흐르기 때문에 그 기세가 매우 험차다’는 의미가 있어야 뒤의 내용인 ‘순종(順從)은 하지만 역(逆)으로 흐르는 것은 불가함을 말한 것이니 순역지기(順逆之機)를 알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의 문맥 전개가 매끄럽다. 그러므로 ① “음비유여(蔭庇有餘)”, ③ “진부동류(盡付

東流)”, ④ “곤륜지수(昆侖之水)”에 대해서는 각주에서 친절히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엄복의 신(信)에 해당하는 원저자가 의도하려는 표현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의 필요성과 출발언어의 표현이 어떤 언어 환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도착언어로 등가성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대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 5.2 달(達)의 번역방법

달(達)의 번역방법은 출발언어인 원문을 도착언어인 번역문으로 독자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원저자의 뜻을 정확하고 매끄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고 적합해야 하는 의역(意譯)에 해당한다. 의역(意譯)은 원문의 정확한 해석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독자의 이해를 위해 문맥의 매끄러운 전개를 위해 전달의 객관성에 입각한 번역가의 표현 능력이 가미되어야 한다. 번역가는 자연스러운 번역을 위해 출발언어의 언어구조와 사회, 문화적 배경 그리고 상황맥락의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번역가는 도착언어의 언어구조와 번역문을 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과 심지어 창작능력의 기능도 소유해야 한다. 그러나 객관성이 결여된 편중된 의역은 오히려 독자에게 내용 전달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원문과 번역문이 의미의 등가성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의미의 등가성을 이루기 위해 번역가는 예상 독자가 속해 있는 시대적 배경과 표현 형식 그리고 문법구조에 있어서도 예상 독자의 눈높이를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번역가가 의욕이 넘쳐 필요 이상의 의욕은 오히려 독자들의 이해에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내용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파악이 전제되는 상황에서 매끄러운 전달과 의미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滴天髓闡微』 통신론(通神論) 방국(方局)편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편중된 의역으로 오히려 독자에게 내용 전달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원문과 번역문이 의미의 등가성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이다.



<출발언어>

“故初運土金之鄉，奔馳未遇， ①至于亥運，生木制煞，軍前效力，得縣佐， ②丙戌運中幫丁克辛，升縣令。③此所謂強衆而敵寡，勢在去其寡，④非煞旺宜制而推也。至酉運，煞逢祿旺，衝破木局不祿。”

<도착언어-사례>

“그러므로 초년 대운 土金에는 바쁘게 움직였으나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①丁亥 대운에 이르러서는 木을 생하고 칠살을 제압하니 군대에서 공이 효력을 발휘하여 현좌(縣佐) 벼슬을 얻었고, ②丙戌 대운에 丁火를 도와 辛金을 剋하니 현령(縣令)으로 승진했다. ③이것이 소위 강한 무리로 적은 것과 대적하는 것이니 세력은 그 적은 것을 제거함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④그렇지 않으면 왕신은 제압하는 것이 마땅하다. 酉 대운에 이르러 칠살이 녹(祿)을 얻어 왕해지고 木局을 파하니 사망했다.”

의역(意譯)은 원문의 정확한 해석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독자의 이해를 위해 문맥의 매끄러운 전개를 위해 전달의 객관성에 입각한 번역가의 표현 능력이 가미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예문에서는 ①,②,③번의 해석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하였으나 ④번의 해석에서는 위 ①,②,③번의 해석과의 연결에서 문맥의 흐름이 이상하게 정반대의 내용으로 흐른다.

①번의 해석에서

“丁亥 대운에 이르러서는 木을 생하고 칠살을 제압하니 군대에서 공이 효력을 발휘하여 현좌(縣佐) 벼슬을 얻었고”

木 일간이 丁亥 대운(丁火-식신)에 [강한 식신(丁火)으로 약한 칠살(金)을 제압하여 군대에서 성공을 거두어 현좌(縣佐) 벼슬을 얻었다는 해석이다.

②번의 해석에서 역시

“丙戌 대운에 丁火를 도와 약한 辛金(칠살)을 剋하니 현령(縣令)으로 승진했다.”

木 일간이 丙戌 대운(丙火-상관)에 [丙火(상관)가 丁火(식신)를 도와] 약한 칠살(金)을 剋하여 현령(縣令)으

로 승진하였다는 해석이다.

③번의 해석에서는

“이것이 소위 강한 무리로 적은 것과 대적하는 것이니 세력은 그 적은 것을 제거함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강한 무리는 丙戌 대운에 丙火가 丁火를 도와 火 기운을 강하게 만들어 상대적으로 약해진 金(七殺)을 대적하여 약해진 金(七殺)이 제거됨을 말하는 것이다. “強衆而敵寡，勢在去其寡”의 내용은 임철초 선생이 가장 강조한 내용으로 ‘강한 것은 약한 것을 제거하고, 그 세력을 강한 것에 맞추어야 한다’는 내용에 부합한다.

그러나 문제는 ④번의 해석이다. 문맥을 부드럽고 간결하게 하기 위한 표현에서 ①,②,③번의 해석에 집착하여 ④번의 해석에서 “그렇지 않으면 旺神은 제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여 ‘非’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아 오류를 범한 경우이다.

“非 煞 旺 宜 制 而 推 也”

⑥ ① ② ④ ③ ⑤

위 문장의 해석에서 핵심은 ‘非’에 있다. ‘非’는 부정의 의미로 ‘아니다’ 혹은 ‘다르다’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도착언어-사례>에서는 ‘非’의 해석을 하지 않아 원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해석이 나왔다.

1) 칠살(七殺)이 왕(旺)하면 (칠살을) 제어함이 마땅하다고 추리하는 것과는 다르다.

2) 칠살(七殺)이 왕(旺)하면 (칠살을) 제어함이 마땅하다고 추리하는 것은 아니다.

‘非’의 해석을 ‘다르다’와 ‘아니다’로 해석을 하는 경우는 앞의 내용인 ①, ②, ③의 경우에는 약한 칠살을 제압하여 ①현좌(縣佐) 벼슬을 얻었고, ②현령(縣令)으로 승진했으니 ③강한 세력(火)은 그 적은 것(金)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④번의 해석은 “그렇지 않으면 왕신은 제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여 원문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해석을 간과하고 앞 문장과의 관계를 고민없이 번역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① (약한) “칠살(辛金)을 제압하니 군대에서 공이 효력을 발휘하여 현좌(縣佐) 벼슬을 얻었고”

② (약한) “칠살(辛金)을 췌하니 현령(縣令)으로 승진했다.”

③ “강한 무리로 적은 것과 대적하는 것이니 세력은 그 적은 것을 제거함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위의 ①,②,③번만 보면 강한 무리는 火를 말하는 것이고, 적은 것은 칠살인 辛金을 말하는 것으로 ①,②,③에서의 칠살(辛金)은 약한 것으로 강한 食상(火)으로 약한 칠살(辛金)을 제거하여 사주의 흐름을 순탄하게 가게 하는 것을 말함이다.

④ “칠살(七殺)이 왕(旺)하면 (칠살을) 제어함이 마땅하다고 추리하는 것과는 다르다.”

①,②,③번은 칠살(七殺)이 약할 때는 제거해서 좋다는 것인데 ④번에서 칠살(七殺)이 왕(旺)할 때 칠살(七殺)을 제어함과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라는 것이다. 즉 ④번에서 왕한 칠살을 제어하는 것이 반드시 마땅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앞의 ①,②,③번의 칠살을 제거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칠살이 약할 때는 강한 食상으로 칠살을 제거하는 것이 사주의 순탄한 흐름을 위해서 앞 ①,②,③에서는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좋은 것인 반면에 ④번에서 왕한 칠살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과는 다른 것이므로 이를 구분해야 할 것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번역가는 출발언어의 정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번역을 도착언어의 언어구조와 번역문을 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과 심지어 창작능력의 기능도 소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의역이 편중되어 독자들에게 내용 전달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원문과 번역문이 의미의 등가성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滴天髓闡微』 통신론(通神論) 형상(形象)편에서 직역을 원칙으로 해 놓은 다음 문맥에 맞게 의역을 해야 하는데 직역을 다소 무시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여 객관성이 결여된 편중된 의역으로 오히려 독자에게 내용 전달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원문과 번역문이 의미의 등가성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이다.

<출발언어>

“通變在一“宜字”。宜泄則泄之爲妙，宜傷則傷之有功。泄者食傷也，傷者官殺也。均是旺也，①或泄之有害，而傷之有利，或泄之有利，而傷之有害，所以泄傷兩字，宜分而用之也。”

<도착언어-사례>

“마땅(宜)이라는 한 글자에 통변의 묘(妙)가 있는 것이다. 설(洩)이 마땅하다면 설(洩)하면 묘(妙)하게 되고, 상(傷)이 마땅하다면 상(傷)하면 공(功)을 이루게 된다. 설(泄)이란 食상이고, 상(傷)이란 官살이다. 똑같이 왕한 경우일지라도 ①설(泄)하는 것이 해가 될 때도 있고, 설(泄)하는 것이 이로울 때도 있으며, 상(傷)하는 것이 해로울 때도 있고, 상(傷)하는 것이 이로울 때도 있다. 그러므로 설(泄)과 상(傷) 두 글자는 마땅히 잘 분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①번을 직역하면

“或泄之有害，而傷之有利，或泄之有利，而傷之有害”

① ② ④ ③ ⑤ ⑥ ⑧ ⑦ ⑨ ⑩ ⑪ ⑬ ⑫

⑭ ⑯ ⑰

혹 泄하면 해로움이 있다. 그리고(그러나) 傷하면

① ② ③ ④ ⑤ ⑥

이로움이 있다.

⑦ ⑧

혹 泄하면 이로움이 있다. 그리고(그러나) 傷하면

⑨ ⑩ ⑪ ⑫ ⑬ ⑭

해로움이 있다.

⑮ ⑯

문맥에서 설(泄)과 상(傷)의 해석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설(泄)은 ‘빠져 나간다’의 의미의 食상으로 나의 기운이 누설(漏泄)되는 의미로 쓰이는 반면에 상(傷)은 ‘상하게 하다’의 의미의 官성으로 나의 기운을 상(傷)하게 만드는 의미로 모두 부정적으로 쓰였지만 단어의 쓰임은 엄연히 다르다.

문맥을 부드럽게 한다면.

혹은 설(泄)하면 해로운 것을 오히려 상(傷)해서 유리할 수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설(泄)하면 이로운 것을 오히려 상(傷)해서 해로운 수도 있다.

결국 설(泄)과 상(傷)의 쓰임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①번의 번역은 설(泄)과 상(傷)의 연관성을 무시하고 설(泄)의 해로운 경우와 이로운 경우 그리고 상(傷)의 해로운 경우와 이로운 경우를 각각 분리하여 번역을 한 것이다. 그러나 설(泄)과 상(傷)이 모두 부정적 의미로 쓰였지만 분명한 것은 각기 그 쓰임이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설(泄)해서 해로운 때는 상(傷)해서 이로운 수 있고, 설(泄)해서 이로운 때는 상(傷)해서 해로운 수도 있다는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사례이다. 즉 설(泄)과 상(傷)의 연관성에서 해석을 해야 할 것을 분리하여 의미 전달에 혼란을 주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사례이다.

### 5.3 아(雅)의 번역방법

아(雅)의 번역방법은 출발언어인 원문을 도착언어인 번역문으로 독자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원저자가 나타내려는 의미를 수려한 단어로 아름답게 다듬어 전하려는 표현이 우아하며 예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신(信)의 방법에 해당하는 직역 번역이 정확하고 객관성을 유지하였다면, 달(達)의 방법에 해당하는 독자의 이해를 위한 문맥상의 자연스럽고 부드러움을 표현하는 의역이 완성하고 마지막으로 아(雅)의 방법에 해당하는 표현함에 있어서 번역자의 창작 능력이 비로소 가미되어 원저자가 나타내려고 하는 바를 이해하기 쉽고 우아한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임철초 선생은 『滴天髓闡微』의 여러 부분에서 고사성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표현의 화려함과 다채로움을 종종 드러내고 있다. 이에 독자들은 원저자의 의도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그러나 번역가는 원저자의 고사성어에 대한 정확한 배경과 의미를 충분히 숙지하여 원저자의 의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화려하게 재창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은 『滴天髓闡微』 통신론(通神論) 쇠왕(衰旺)편에

서 고사성어의 의미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여 아(雅)의 방법인 표현함에 있어서 번역자의 창작 능력이 가미되지 못하여 번역자만의 아름답고 화려한 표현을 하지 못한 사례이다.

<출발언어>

“此造壬水生于孟冬，支類北方，干皆金水。水太旺者，似土也，喜其寅木吐秀。至甲寅運，早遂青雲之志，可謂才藻翩翩，輝映①杏壇桃李，文思奔奔，光騰②藥籠參苓，乙卯運官途順遂，交丙而亡。”

<도착언어-사례>

“이 명조는 壬수가 맹동(孟冬)에 생하고 지(支)가 북방류이며 천간이 모두 金水이다. 「수태왕자사토(水太旺者似土)」라고 했으니 木이 用인데, 기쁜 것은 寅木이 수기(秀氣)를 띠하고 있는 것이다. 甲寅 운에 이르러 일찍이 청운의 뜻이 따랐으니, 이른바 재조(才藻)가 펴 펼쳐져 ①행단(杏壇) 도리(桃李)와 같이 휘날렸고, 문사(文思)가 혁혁하여 ②약룡삼릉(藥籠參苓)처럼 되어 문단을 빛냈다. 乙卯 운은 벼슬길이 순탄하였고 丙 운에 사망하였다.”

<도착언어-사례>에서 ①“杏壇桃李”의 고사성어에 내포되어 있는 비유적 의미를 표현하지 않고 한자의 원문을 그대로 나타내어 아(雅)의 표현 방법인 우아하고 아름다운 원저자의 의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① “행단(杏壇)”은 옛날 공자(孔子)가 사수(泗洙)에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던 유지(遺址) 12) 이고 복숭아나무나 자두나무는 꽃이나 열매가 아름다워 저절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의미로 훌륭한 선생이 있는 곳은 굳이 알리려 하지 않아도 많은 제자들이 모여든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杏壇桃李”의 의미는

공자님이 훌륭한 제자들을 모아 놓고 학문의 장을 연 것처럼 문장이 아름답고 고상함이 극치를 이루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이른바 재조(才藻)가 펴 펼쳐져 ①행단(杏壇) 도리(桃李)와 같이 휘날렸고, 문사(文

12) 행단(杏壇)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思)가 혁혁하여”라는 식의 표현은 고사성어에 익숙하지 않은 현재의 독자들에게는 의미 전달이 전혀 안 되었을 것이다. 원저자가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번역가들은 고사성어에 대한 의미를 잘 음미하고 이를 아름답고 세련되게 표현하기 위한 재창조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② **약룡삼룡(藥籠參苓)**도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이도 역시 한자의 의미를 풀이 하면 ‘약룡(藥籠)’은 약을 담아 놓는 약상자를 말하는 것이고, ‘삼룡(參苓)’ 약재료 중 귀한 약재로 인삼과 복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약룡삼룡(藥籠參苓)”의 의미는

약장 속에 있는 귀한 약재인 인삼과 복령처럼 빛이 났다.

정도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원저자의 의도는 “문사(文思)가 혁혁하여 **②약룡삼룡(藥籠參苓)**처럼 되어 문단을 빛냈다.”의 표현보다는

문장 속의 사상의 아름다움은 마치 약장 속에 있는 귀한 약재인 인삼과 복령처럼 뛰어나 빛이 났다고 할 수 있다.

정도의 의미를 고려하여

“이른바 재조(才藻)가 펴펴하여 **①행단(杏壇) 도리(桃李)**와 같이 휘날렸고, 문사(文思)가 혁혁하여 **②약룡삼룡(藥籠參苓)**처럼 되어 문단을 빛냈다.”

의 번역보다는

이른바 글 짓는 재주는 펴펴 날았고, 공자님이 훌륭한 제자들을 모아 놓고 학문의 장을 연 것처럼 문장이 아름답고 고상함이 극치를 이루었다. 그리고 문장 속 사상의 아름다움은 마치 약장 속에 있는 귀한 약재인 인삼과 복령처럼 뛰어나 빛이 났다고 할 수 있다.

번역은 기본적으로 객관성에 입각하여 원저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미를 아름답

고 고상하게 표현하기 위한 번역가의 고심이 필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의미를 아름답고 고상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원저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고상함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의미 전달에 충실하는 것이 진정한 아(雅)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滴天髓闡微』 통신론(通神論) 방국(方局)편에 보이는 사례로 문장 성분의 배열에 있어서 전체적인 의미를 먼저 고려하지 않고 옛날 서당식 한자 공부에서 사용하던 문장 성분을 배열하여 문맥의 의미 전달에 혼란이 오는 경우이다. 글을 쓸 때는 각 문장 성분인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 관형어와 체언의 호응관계 등 각 문장 성분의 호응관계가 어울리지 않을 경우에는 번역문이 다소 어색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문장 성분의 위치 또한 매우 중요하니 각 문장 성분의 위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출발언어>

“此支類東方，火明木秀，**①最喜丙火緊剋庚金之濁，②然春初木嫩，必得亥時生助。爲人風流瀟灑，學問淵深。**”

<도착언어-사례>

“이 사주는 지(支)가 동방류인데 火가 밝으니 木이 빼어난다. **①丙火가 가장 기쁘다. 庚金의 탁기(濁氣)를 곁에서 剋(剋)하나 ②초봄이라 木이 약하니 반드시 亥時에서 생조함을 받아야 한다. 이는 사람됨이 풍류를 좋아하며 산뜻하고 깨끗하였으며 학문도 연못처럼 깊었다.**”

①“最喜丙火緊剋庚金之濁”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착언어>의 해석은

1) “**最喜丙火緊剋庚金之濁**”

② ③ ① ⑦ ⑧ ④ ⑤ ⑥

“**丙火가 가장 기쁘다. 庚金의 탁기(濁氣)를 곁에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헐하나

⑧

1)의 <도착언어-사례> 번역은 옛날 서당에서 강독할 때의 번역 순서이므로 문장 성분의 배열이 현재의 문장 성분의 배열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서 번역의 어색함은 물론 의미 전달에 있어서도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이를 현대의 문장 성분의 배열에 따른 번역을 하면

2) “最 喜 丙火 緊 絀 庚金 之 濁”

① ② ③ ⑦ ⑧ ④ ⑤ ⑥

가장 기쁜 것은 丙火가 庚金의 탁기(濁氣)를 곁에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헐하나

⑧

1)의 해석은 전체를 두 문장으로 나누어

“丙火가 가장 기쁘다. 庚金의 탁기(濁氣)를 곁에서

제 1문장

제 2문장

헐하나”

제 1문장에서의 ‘丙火가’ 주어이고 ‘가장’은 부사어이고 ‘기쁘다’는 서술어가 된다. 그러나 제 2문장에서는 ‘庚金의’는 관형어이고, ‘탁기(濁氣)를’은 목적어이고, ‘곁에서’는 부사어이고, ‘헐하나’는 서술어가 된다. 제 1문장에서 마침표를 표시하였으면 당연히 제 2문장에서는 새로운 주어가 등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 2문장에서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극(絀)하는 주체가 없게 되어 문맥이 매끄럽지 못하다.

문장의 종류에서 안은문장 중 서술어를 안은문장은 문장 전체 주어의 서술어는 따로 없고 안긴문장 전체가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명수는 (밭이 길다.)

전체주어 안긴주어 안긴서술어

전체 서술어 역할

이 문장에서 ‘명수는’은 전체 문장(안은문장)의 주어이고, ‘밭이 길다’는 안긴문장의 새로운 문장으로 이 문장에서도 ‘밭이’는 안긴문장의 주어가 되고, ‘길다’는 안긴문장의 서술어가 된다. 그리하여 ‘밭이 길다’는 전체 문장(안은문장)의 주어인 ‘명수는’에 호응하는 서술어 역할을 한다.

2)의 해석은

가장 기쁜 것은 [ (丙火가

전체 문장 주어 안긴 문장의 주어

庚金의 탁기(濁氣)를 곁에서 헐하나]

안긴 문장의 서술어

[안긴 문장(문장 전체의 서술어 역할)]

‘가장 기쁜 것은’에 해당하는 서술어는 ‘헐하나’가 아니라 ‘庚金의 탁기를 곁에서 극하나’가 문장 전체에 해당하므로 위의 1)의 해석처럼 두 문장으로 나누었을 경우에는 의미 전달에 있어서 어색함이 보인다. 그러므로 2)의 해석처럼 안긴문장을 안은문장의 전체 서술어로 처리한다면 문맥의 매끄러움은 물론 원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장이 아름답고 매끄러움의 기본 전제는 정확한 의미 파악을 한 다음 <도착언어>의 언어 구조에 맞게 원저자의 의도를 표현하였을 때 비로소 아(雅)가 제대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②의 해석은 문장의 종류를 신중하게 고려했으면 좋을 사례이다.

② “然春初木嫩，必得亥時生助。爲人風流瀟灑，學問淵深。”의 해석에서도

1) “초봄이라 木이 약하니 반드시 亥時에서 **생조함을 받아야 한다. 이는 사람됨이** 풍류를 좋아하며 산뜻하고 깨끗하였으며 학문도 연못처럼 깊었다.”

두 개의 문장으로 번역을 하였는데 정확하게 보면 이 문장은 조건문으로 앞 뒤 두 개의 문장은 ‘~하면 ~일(할) 수 있다’라는 식의 문장이 되어야 한다.

2) “초봄이라 木이 약하니 반드시 亥時에서 **생조함을 받으면 이는 사람됨이** 풍류를 좋아하며 산뜻하고 깨끗하였으며 학문도 연못처럼 깊을 수 있다.”

1)과 같이 번역을 하였을 경우 “**이는 사람됨이** 풍류를 좋아하며 산뜻하고 깨끗하였으며 학문도 연못처럼 깊었다.”에서는 “**이는**”은 앞 문장 “초봄이라 木이 약하니 반드시 亥時에서 **생조함을 받아야 한다.**”를 지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이를 두 문장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한 문장으로 처리하여 조건문임을 나타내는 것이 독자에게는 의미 전달이 보다 쉬울 수도 있다.

이상으로 아(雅)에 대한 번역 방법은 우선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표현함에 있어서 <도착 언어>의 언어구조에 맞게 배열하고 번역가의 창작 능력이 비로소 가미되어 원저자가 나타내려고 하는 바를 이해하기 쉽고 우아한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 6. 결론

지금까지 엄복(嚴腹 : 엔푸 1853 ~ 1921)의 신·달·아(信·達·雅)라는 번역 방법론 기준으로 『滴天髓闡微』에 적용을 고찰하였다. 번역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기본 조건은 우선 출발언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직역인 신(信)의 방법과 독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 문맥에 맞춘 의역인 달(達)의 방법, 글 전체를 우아하고 예스럽게 표현하기 위한 아(雅)의 방법을 사용하여 번역자의 제2의 창작이라 할 수 있는 번역서 방법론 및 적용을 살펴보았다.

명리학이 학부와 대학원에서 정규과목으로 자리매김을 한 현재의 상황에서 이제 명리학도 인문학적인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명리학의 원서 번역서들은 꾸준히 출간되고 이에 대한 공로로 후학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명리학의 원서 번역 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출발언어와 도착언어의 서로 다른 언어 구조와 사회적 배경, 그리고 사고 구조의 차이로 인해서 출발언어와 도착언어의 완벽한 등가성을 이룬다는 것은 영원한 숙제일 수도 있다. 더군다나 언어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

이 항상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늘 번역 당시에 맞는 표현법을 따라야 한다. 시대는 흐르는데 번역의 방법이 변하지 않는다면 각주구검(刻舟求劍)의 고사와 같이 배(시대의 흐름)는 가고 있는데 물위에 떨어진 칼의 위치를 배에 표시한 것(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번역방법)을 보고 칼을 찾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번역은 기본적으로 학교 문법을 준수하면서 표현 방법에서도 현대적 사고에 알맞아야 한다. 또한 번역 이론에 관한 연구 논문도 지속적으로 많이 나온다면 서로 다른 언어로 된 두 나라의 문화와 사상을 연결하여 공통된 사고를 추출한 번역이 언어 구조는 물론 사상에서도 등가성을 이룰 수 있기에 번역의 의의와 가치는 매우 중요하고 이에 걸맞은 번역 이론의 연구도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References

- [1] 김기승·김현덕(2017), 『滴天髓闡微』, 다산글방
- [2] 김기승·나혁진(2018), 『명리학사』, 다산글방
- [3] 김동규(2012), 『完譯 滴天髓闡微』, 명문당
- [4] 김정혜·서소옥·안명순(2013), 『滴天髓闡微 上,下』, 이담북스
- [5] 김효중(1998), 『번역학』, 민음사
- [6] 남기심·고영근(2017), 『표준 국어문법론』, 도서출판 박이정
- [7] 예광해(1999), 『滴天髓闡微 상,하』, 도서출판 지남
- [8] 이석규 외 5인 공저(2002), 『우리말답게 번역하기』, 역락
- [9] 이선중(2003), 『적천수천미 해설강의 상,하』, 도서출판 장원
- [10] 임정환(2006), 『제대로 보는 滴天髓闡微 1,2,3,4』, 원제역학연구원
- [11] 예광해(1998) 『적천수천미』. 서울: 도서출판
- [12] 최기천(2014), 『중국어 번역법』, 학고방
- [13] 최정화(2001), 『통역/번역 노하우』, 도서출판 넥서스
- [14]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15]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1. 30. 한국문학평론가협회
- [16] 《漢韓大字典》(1982), 민중서림
- [17] 任鐵樵 增注. 袁樹珊 撰集, 『滴天髓闡微』, 武陵出版有限公司, 2006.

김 현 덕(Kim, Hyun-Deok)



- 1984년 8월 :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 1986년 8월 :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 석사)
- 2019년 3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동양학 박사)
- 관심분야 : 명리학, 동양철학, 교육학, 명리고전 번역
- E-Mail : kimbak4@hanmail.net

김 기 승 (Kim, Ki-Seung)



- 2011년 2월 : KICU대학원졸업(교육학박사)
- 2014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졸업 (직업학박사)
- 2005년 3월~2011년 4월 KICU대학원 교수
- 2012년 3월~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진로교육, 선천적성, 직업상담, 명리학
- E-Mail : kbs4984@hanmail.net